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 / 최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민중불교운동에 불을 지피다

# 최연은 후배를 여익구는 승려를 결집해

“공동 불교야학연합회 공동 세미나 이런 것을 교사들 공동연수도 시키고 이랬어요.” 당시 불교야학연합회 결성됐음을 말한다. 노동자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컸다는 점을 반증한다. 비록 수사 당국에 의해 와해됐지만 그 학생 운동은 승가단체인 지도법사단과 연계되면서 80년대 새로운 불교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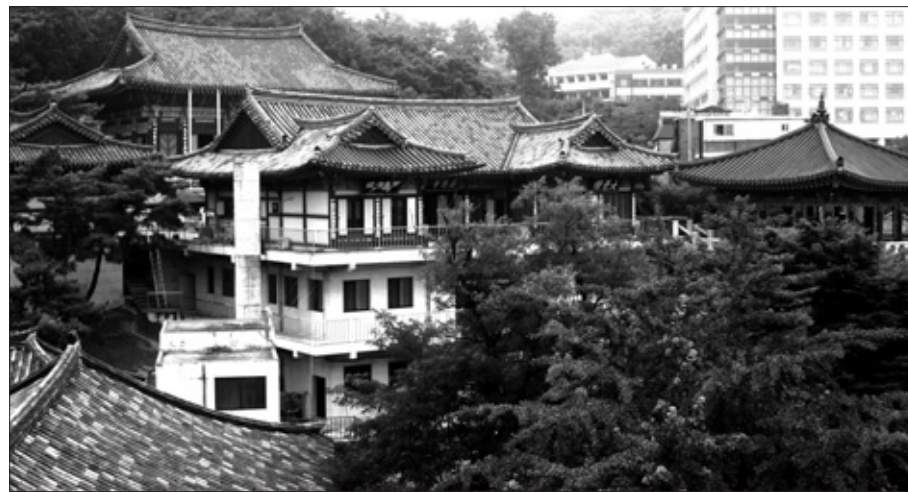
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배경에는 최연과 여익구의 활동 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최연은 1979년 말 제대와 함께 불교운동에 복귀했고, 여익구도 이 시기에 승려 생활을 접고 민주화운동에 투신한다. 최연이 대불련을 중심으로 활동한 배경이 있다면 여익구는 탄허 스님을 시봉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스님들과 교류했다. 최연이 대불련 후배들을 운집시켰다면 여익구는 승려 중심의 지도법사단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대불련 내에서 어쨌든 인제 거기는 (여)익구 형이 있으니까 진보적인 활동도 하는데 민중불교적인 그거보다도 더 뛰쳐나와서 하는 이젠 더 급진적이다. 아주

급진적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대불련 내에서는 차곡차곡 그런 어떤 기반들을 쌓았지요. 지도법사단들 의식화 시키는 거 하고 대중들을 일정부분 있잖아 의식을 고양시키는 대회도 하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사원화 운동하면서 여익구대 할 때는 간사로 참여해주고 다 했어요. 이 빠져나온 게 아니고 그 대불련은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그 헤어집니까? 익구 형하고 안 헤어져.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중에 이제 민불련(민중불교운동연합)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둘의 노력은 마침내 1985년 ‘민불련’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최연의 대불련 활동과 여익구의 민청학련 이후 이어지는 활동에서 현대 한국불교운동사의 일면을 보게 된다. 그들의 활동이 이어질 때 승가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최연은 대불련이 승가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자평한다.

“70년대 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 사실 정권과 너무 밀착돼 가 있었고 조계종이 그 다음에 스님들이 그 사회인식 이거에 생각이 안 할 때고 뭐 형제고 좀 그러한 어



민중불교운동의 불씨를 지켰던 개운사

떤 구조적인...” “조계종이 너무나 있잖아 등한시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조계종의 많은 문건과 토론에서도 나오는 자기 반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인제 그 이후에 인제 요러한 스님들의 의식이 계기가 (변하게) 된 게 사실은 1976년도에 생기기 합니다.” 승가, 구체적으로 조계종이 대 사회운동에 나서지 못한 원인은 조계종단의 정화운

동과 친정부적 성향이었다고 말한다. 정화과정에서 비구·대처의 대립으로 불교운동의 동력을 잃어버렸음과 동시에 스님들의 보수적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 것은 최연 자신이 대불련 회장이었을 당시(1976)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승가의 대사회운동을 시작한 것은 10·27법안 이후 구성된 대불련 지도법사단이라고 말한다.

##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 천계의 신들, 지상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로 결심하고 실천을 한 이후, 제석천을 비롯하여 여러 하늘의 천신들은 바쁜 나날을 보냈다. 고통이나 슬픔 없이 오로지 지극한 즐거움과 아름다움만 계속되는 천계의 일상은 부처님으로 인해 지상과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한다. 부처님의 탄생을 계기로 천계의 신들은 적극적으로 지상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난다.

어진 수명을 안락하게 누리는 것에 만족했을 많은 신들의 성격이 이타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한 것이다.

부처님과 함께 지상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 결심한 99억의 신들이 부처님의 탄생을 전후로 인도 곳곳에 흩어져서 왕족이나 바라문의 몸을 받고 태어난다. 인간까지의 아이러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인생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신들은 천계에서 자진하여 내려와 인간과 신의 중간 단계인 신신의 지위를 획득한다. 즉, 99억의 신들이 천계를 떠난 것이다.

비위진 자리는 채워지기 마련이다. 지상에서 막 올라온 이 새로운 신들은 천계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온다. 이들이 가져온 바람은 ‘불법 수호’의 즐거움과 그로인하여 주어지는 커다란 ‘복덕’이다. 새로운 것은 곧 유행이 되어 신들의 세계 전체에 퍼져 나간다.

부처님이 태어날 무렵을 전후로 천계의 인구는 대대적으로 감소한다. 이전까지 주



불법수호 삽화=김영수

일단 인간의 몸을 받아 지상에 태어난 신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태어나기 전 자신이 신이었다는 것, 어떠한 서원을 세웠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닿는 순간, 전폭적으로 부처님을 응원한다. 평생 박멸없이, 결립 없이 법륜을 굴리며 왕들과 바라문들의 마음을 얻었던 부처님의 놀라운 인맥과 관계유지의 비결은 바로 여기

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이도 있었다. 제석천왕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흔들림 없이 신의 자리를 지킨 덕분에 제석천왕은 사천왕, 대법천왕 등 천계에 남은 다른 신들과 함께 부처님이 태어나는 순간을 생생하게 함께할 수 있었다.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부인이 출산을 마쳤을 때, 부처님과 함께한 것은 제석천왕의 수하에 있는 천계의 권속들이었다. 난타용왕과 우바나타 용왕은 물을 뿌려 부처님의 몸을 씻겼고, 사천왕은 하늘의 비단으로 부처님의 몸을 감쌌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제석천왕과 범천왕은 나란히 좌우에서 흐뭇하게 이 모습을 지켜본다. **조민기 작가·칼럼니스트**



##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 그냥 들어 주는 것이 소통의 비결

가을이 익어가는 지를 느낄 시간도 없이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을에 대한 이미지는 수확의 풍요로움과 함께 떨어지는 낙엽의 쓸쓸함도 있었다.

계절덕분인지 유난히 외로움이나 고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다.

아마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따뜻한 관심이야말로 누군가를 이해하는 첫 걸음을 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 남의 말 제대로 들어주는 것이

#### 타인을 이해하는 쉬운 방법

####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임을

####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기도 해

병원의 법당 문에 들어서서 나갈 때까지 작은 내 책상을 마주하며 앉게 되는 저 사람들은 단지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데도 눈물을 왈칵 쏟아낼 때가 있다. 때로는 울고 있는 사람에게 티슈 한 장을 내미는 것조차 눈물을 터트리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토해내는 그 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진다.

사람들은 고통을 느낄 때 대개의 경우 고통 자체로 인한 문제가 있지만 고통 그 자체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지 못할 때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은 들어주는 경험을 갖지 못했다고 말한다. 대부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고통이나 불행은 스스로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아픔들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문제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중하고 다급한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저 ‘듣기’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고통과 아픔의 기억들을 그저 들으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매우 잘 듣고 있음을 마음으로 알려줄 뿐이다. 환자나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할 뿐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든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의 말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어쩌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를 떠나서 내게 말하는 사람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타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가끔씩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말을 다하지 못한 채 도리어 상대방의 얘기만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인지 병원 법당 안에서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나와 상대방을 연결하고자 한다. 내게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그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다. 내가 어쨌든 건네는 위로나 문제 해결의 방향 제시보다는 고통을 들어주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도 20여 년 가까이 매일 병원 법당에서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스스로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열린 마음의 힘을 모두들 알고 있으면 좋겠다. 내 옆의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온전히 그 이야기에 집중하며 들어주는 것, 고통받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쏟아낼 때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 다 대단한 것인가는 나중에서라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쬐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p><b>1</b>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2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p>	<p><b>2</b>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p>	<p><b>3</b>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p>	<p><b>4</b>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p>
<p><b>5</b>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헝겊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p>	<p><b>6</b>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p>	<p><b>7</b>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p>	<p><b>8</b>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p>
<p><b>9</b>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p>	<p><b>10</b> 다시 매듭을 3번 헝겊 조이면 됩니다.</p>	<p><b>11</b>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p>	<p><b>12</b> 108염주 완성 심왕산인특허출력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55</p>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들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